# ‘대행선 연구·진흥’ 올해도 이어진다

## 대행선연구원, 2020년 사업 ‘다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 주인공 관법’ 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선사상과 한국불교학 진흥을 위한 대규모 학술공모사업이 올해에도 이어진다.

(재)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은 “대행선 사상 연구와 불교학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와 학술상, 장학금 공모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오는 5월 16일 동국대에서 열리는 제4회 학술대회다. ‘불교사상과 대행선 사상’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화엄 · 법화 · 정토 등 불교 전반의 사상체계와 대행선의 연관성을 살피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병욱 고려대 교수가 ‘법화사상과 대행선 사상’을,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원이 ‘정토사상과 대행선 사상’을, 안환기 서울대 교수가 ‘유식사상과 대행선사상’을 발표한다.

전성준 동국대 티베트장경연구소 연구원은 밀교사상과 대행선 사상의 연관성을 살피며, 김방룡 충남대 교수는 선사상과 대행선 사상을, 권탄준 대행선연구원장은 화엄사상과 대행선 사상의 상관관계를 고찰한다.

논평자로는 이기운(동국대), 문을식(동국대), 김성철(금강대), 김영덕(위덕대), 혜원 스님(동국대), 박보람(충북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의 법호인 ‘묘공’을 인용해 제정된 ‘묘공학술상’ 공모는 올해에도 이어진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묘공학술상은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생애를 체계적으로 연구 조명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공모 분야는 대행선과 불교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 불교학 관련 모든 분야로 응모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선학과 불교학 전문가이다. 공모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심사를 걸쳐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10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7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지난해 열린 대행선연구원 제3회 학술대회의 모습. 올해에는 ‘불교사상과 대행선 사상’을 주제로 5월 16일 동국대에서 제4회 학술대회가 열린다.

**‘불교사상과 대행선 사상’ 주제로**
**5월 16일 동국대서 4회 학술대회**
**묘공학술상 · 장학생 공모사업 진행**
**3·6·9·12월 계절발표회도 이어져**

올해 대상 수상 논문과 우수상 논문들은 자체 학술지인 〈한마음연구〉에 게재되며, 또한 학술상 응모 논문 중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탈락된 논문들도 별도의 심사를 거쳐 〈한마음연구〉에 수록된다.

전문연구자들을 위한 묘공학술상 외에도 불교학, 선학 신진연구자들을 위해서는 ‘〈한마음연구〉 논문투고’를 통해 전문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마음연구〉에 연구 논문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게재비 4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불교학 연구자를 위한 ‘묘공학술장학생 선발 공모’도 이뤄진다. 대상자는 불교학, 대행선 관련 학위논문과 〈한마음연구〉 논문 투고를 준비하는 대학원 재학생과 수료자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석사는 최대 2년, 박사는 최대 3년, 수료생은 최대 1년간 연 2회 장학금을 지급하며 대행선연구원에서 진행하는 학술활동 참여와 발표기회를 제공한다. 선발 공모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공모 신청방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와함께 전문연구자들을 초청해 연구발표를 듣는 계절발표회는 올해도 3 · 6 · 9 · 12월에 개최되며, 대행선과 불교학 관련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올해 첫 계절발표회는 오는 3월 14일 오후 1시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열린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윤종갑 동아대 교수가 ‘대승의 공사상과 대행의 주인공’을,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 인경 스님이 ‘대행스님의 주인공 화두명상’을 각각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이상호(대행선연구원), 차상엽(금강대), 문진건(동방문화대학원대), 이필원(동국대 경주) 등이 참여한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행화를 따르고 선양하고자 설립된 대행선연구원은 대행선 연구와 불교학 진흥에서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전문 연구자들의 불교학술 진흥사업과 학술행사를 올해도 다채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선학 및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세계유산 행정 이해 돕는 보고서 발간

## 의제 분석 · 평가 지침 2종
## 영문판 韓유산 소개서도




세계문화유산 행정에 이해를 돕기 위한 보고서가 잇달아 발간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세계유산 관련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학계 등 관계자들의 세계유산 등재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제분석〉 보고서와 〈세계문화유산을 위한 유산영향평가 지침〉 한글번역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제 분석〉보고서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이다. 43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의제와 주요 논의사항, 결정문을 수록했으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와 등재에 대한 자문기구의 권고와 세계유산위원회의 토론을 통해 결정문이 수정된 과정을 비교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유산의 보존관리와 등재에 대한 자문기관 의견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해 세계유산 관련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문화유산을 위한 유산영향평가 지침(Guidence on Heritage Impact Assessments for Cultural World Heritage Properties)〉은 ‘유산 영향평가(Heritage Impact Assessments)’의 운영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가 공동으로 펴낸 지침서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세계유산에 위협이 되는 다양한 요소가 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유산 영향평가(HIA)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무자와 전문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침서 한글번역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국의 유네스코 유산을 해외에 소개하는 〈UNESCO HERITAGE IN KOREA〉영문판도 발간됐다.

〈UNESCO HERITAGE IN KOREA〉는 2019년까지 등재된 한국의 유네스코 유산을 총망라한 영문판 소개서다. 세계유산 14건, 인류무형유산 20건, 세계기록유산 16건 등 각 유산의 핵심 정보를 수록하고 유네스코 등재를 통해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가치가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다. 휴대하기 좋은 크기의 소책자로 제작해 한국문화의 정수를 알고자 하는 외국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재청은 “세계유산에 대한 유네스코 정책 동향 등 최신 정보를 제공해 등재추진, 보존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도서를 꾸준히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古신라 불교미술’ 알고 싶다면

## 한국미술사硏 박물관대학 제55회 미술사 강좌

**오는 3월23일 개강 예정**
**전문가 강의 12회 진행**

불교의 수용과 고(古)신라의 불교미술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강좌가 열린다.

(사)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 · 동국대 명예교수)는 산하 박물관대학 제55회 미술사 강좌를 개최한다.

‘불교의 수용과 고신라의 화려한 미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불교 전래 · 수용과 고대 신라의 불교 미술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의 강의로 구성된다.

강의는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의 ‘불교의 신라수용과 고신라 석불상의 전개’로 3월 23일 시작된다.

강의로는 △황룡사 9층목탑과 고신라의 불사 건축(조원창 한얼문화유산연구원장) △황룡사 장육존상과 황룡사의 불상(양은경 부산대 교수) △고신라의 사리기, 그리고 불교 공예(최응천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고신라의 금동불상(주수완 우석대 교수) △분황사 모전석탑과 간다라 석탑의 수용(문명대 소장) 등이 진행된다.

제55회 박물관대학 미술사 강좌는 오는 3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강의 장소는 한국미술사연구소(서울 종로구 북촌로 11길 4)다. 수강료는 17만원(학생 15만원)이다. (02)3673-3426

신성민 기자

# 탄허아카데미 육조단경 · 선시 강좌

## 오는 3월 2일 개강… 매주 월 · 화 강의

오대산 월정사 부설 탄허아카데미(탄허강숙)는 2020년 1 · 2학기 강좌를 연다. 오는 3월 2일 개강하는 올해 강좌는 정성본 스님(동국대 前 교수)과 석지현 스님의 강의로 이뤄진다.

정성본 스님은 3월 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육조단경〉(1학기)과 〈임제록〉(2학기)를 강의하며 석지현 스님은 3월 3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선시 300수 해석과 감상(1~2학기)을 강의한다.

강의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하나로빌딩에 위치한 원효불교연구재단 강의실에서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강의 접수는 전화와 이메일(tanheogangsuk@naver.com)로 접수하며, 수강료는 25만원이며 2과목 수강 시에는 40만원이다. 수강인원은 25~30명이며, 선착순 마감이다.

(02)732-2403~4 신성민 기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사찰 연등 및 전선 전선간격 :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ISO 9001 인증기업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 ·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